

신약과 문화와의 관계

문용식(총신대 국문학과)

I. 서론

본고는 신약성경에 나타난 복음과 문화에 관한 검토이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문화적 특질은 이미 발표한 바 있으므로(줄고, 2004) 신약성경에 나타난 복음과 문화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문화적 가치에 대한 성경적 태도, 그리고 계시와 문화에 대한 상황화의 적용을 성경적 원리에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하나님께서 희미한 안개 속에서 복음을 계시하거나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속으로 내려오셔서, 문화를 통해 계시하셨다는 관점아래 선학들의 연구를 토대로(Kraft, 1979; Marshall, 1991) 초문화적 진리가 문화와 어떤 길항관계내지 상관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신약 성경에 나타난 복음과 문화와의 관계가 쌍방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기회를 갖기로 한다. 그리고 문화적 가치에 대한 신약성경의 태도를 살피고자 하는데,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II. 복음과 문화와의 관계

1. 문화가 선포된 복음의 형태에 미친 영향

문화가 선포된 복음의 형태에 미친 영향이 무엇일까?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

1) 문화는 인식적·감정적·평가적이라는 세 차원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며, 문화는 인간의 신학적·인류학적·사회학적·심리학적·생물학적·육체적이라는 여섯 가지 총체적 모델에 입각해서 연구해야

첫째, 문화란 생활에서 신을 섬기는 외면화된 종교행위라고 보는 한 정의를 채용할 때, 문화가 복음을 위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복음이 특정한 문화적 배경 하에 고백되어지면, 특정문화의 기득권층이 복음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박해한다.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요 5:1), 예루살렘에 본거지를 둔 유대관원들이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James Boice, 1995:19) 있음을 통해서 이 점이 쉽게 확인된다.

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새로운 큰 위협요인으로 생각하며 거부반응을 보였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관원들이 준수하고 있는 문화, 즉 그들의 관습적인 종교문화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의 규례를 율법에 첨가하여 율법을 가장 악한 형태의 율법주의로 떨어뜨리자, 율법의 참뜻을 밝히셨다.²⁾ 즉 예수님께서 종교문화를 표현하는 권세(관현)들에게 “위선자들”(의식하는 자들, 막 7:6)이라고 비난하며 그들의 종교적 허위성을 날카롭게 폭로하셨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시종일관 예수님에게 대답각을 세우며 위협한다. 이러한 근거에서 볼 때, 반틸(Vantil)이 문화에 중립이란 있을 수 없으며, 중립이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Vantil, 1984:295)라고 해석한 것이 정당화된다.

문화가 복음을 위협할 때 초래하는 상황 가운데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특정 문화에 속한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요한복음 1장과 4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와 다른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 갈릴리 사람들, 심지어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의 복음에 호의적이었던 점이 이를 입증한다. 우리는 일부의 기득권층이 복음에 적대적이라고 해서, 그 문화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악한 존재로 보아서는 안된다. 우리는 신약성경을 충실하게 해석하고자 했으나 잘못 해석해서, 복음에 적대적이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의 행동을 유대인 전체로 확대한 후, 그들을 악한 존재로 보아 왔던 과거의 역사적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Hays, 2002:663).

둘째, 문화는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다. 복음이 특정한 문화적 배경에 뿌려지는 가운데 모든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올바른 상황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복음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다. 기독교 상황화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전체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방법까지 그들의 문화에 맞추어 이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상황화는 복음 전파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전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상황화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대답이며 초대교회사에 나타나는 양상이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관성 있는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특정문화에 맞는 상황적 적합성을 고려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바울은 율법을 비판할 때 이스라엘의 예언적 전통 앞에서 서 있었고, 이방 사람들을 판단할 때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헬라 도덕을 사용하였다. 즉, 그는 주변 세계와 완전히 분리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유대주의의 입장에 서지도 않았다(Baker,

한다(Hiebert, 1993:27,34)

2) 더 자세한 상황을 알려고 하면 (박희석, 2002:521-574)를 참조할 것.

2003:10). 그의 신학 방법은 복음의 일관된 중심을 주어진 상황의 특수성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었다 (Baker, 2003:67).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묵시론적 희망을 전했다(김경진, 2003:185), 고린도 교회에는 헬라적 그리스도인들이 반문화적 영향(counter-cultural impact)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편지로 경고하였다.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의 의의 율법(midrash)을 말할 때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하였고(3:3-9;4:22-30), 자유의 노래를 말할 때는 마라톤의 승전기(갈 5:13)라는 헬라의 문화적 상황을 토대로 하여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이 두 문화적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브라함을 이방인을 위한 믿음의 '앞선 복음 전수자'로서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같이 바울은 신앙 공동체에 교훈을 줄 때 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관계에 기인한 상황화 문제 때문이었으며(김경진, 2003:192-193),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중문화적 소양을 두 문화와 연관지어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였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토착문화 때문에 변질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자 그는 그 일탈에 대한 변증을 시도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고린도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하향 추세를 보인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는 그들의 왜곡된 복음을 거부하였으며, 복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상황적 적합성으로 그들을 설득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새로운 토양에 뿌리고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을까 유심히 관찰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의미심장하게 보아야 하며, 어떻게 그들을 설득시키고 있는가를 동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왜 고린도 교회의 복음이 변질되었을까? 고린도 교회는 헬라적 이원론인 열광주의자(enthusiasm)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무율법주의(antinominalism)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다. 이들은 영과 물질(육)을 엄격하게 가르는 헬라적 이원론에 젖어서 자신들을 육신의 제약에서 벗어난 영적인 존재로 보았다(고전 3:1). 이들은 자기의 영혼이 벌써 하늘의 구원을 얻었으므로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방인 시절의 문란한 성 생활을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문란한 이방인조차 할 수 없는 방탕한 짓까지도 행하는 말폐적 상황을 노정하기에 이르렀다(고전 5:1-11;6:12).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미 취해 있기도 하여 복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었다(고전 11:21). 이와 같이 바울은 열광주의라는 헬라 문화의 영향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몇 가지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극단의 금욕주의 경향이라는 소극적인 방법을 택하는 이들도 있었다(김세운, 2007:21). 금욕주의자들은 육은 중요하지 않고 영혼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에 얽매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구호를 내세우며 결혼 거부의 길을 택하기도 하였다(7장).

또 바울은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주지주의가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양상을 보이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는 헬라의 지혜사상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다 미련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어서 그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어떻게 지혜가 되며, 성령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신

의 비밀과 숨겨진 지혜가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심오함을 밝힌다(고전 2:6-10). 그는 세상의 판단으로 무능과 패배의 상징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의 최고 힘보다 강한데 그것은 모든 것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생각도 아는 성령의 지식에 참여할 때 가능하다(고전 2:10)고 변증한다.

위에서 보듯 고린도 교인들은 헬라문화의 영향으로 바울 사도가 선포한 복음을 상실한 상태에 놓였다. 이들 안에 육체에 속한 것이 들어와서, 설교자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개성을 중심으로, 빈부의 차로 나뉘어져 복음이 주는 자유를 상실한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어야 할 성만찬을 분쟁의 장으로 만든다. 그러자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하며(고전 11:17-33) 그들에게 올바른 성찬식을 거행하라며 구체적으로 충고한다(김세윤, 2007:285-290).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비판의 자리에서도 바울이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헬라 문화를 통해 복음을 변증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바울은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특징을 나타내는 언어들 그대로 사용하여 헬라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들의 문학 양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바, 이것이 우리의 각별한 주목을 끈다. 바울은 헬라문명권의 세계 속에서 십자가의 도로 변증할 때, 헬라 언어인 로고스와 반문화인 십자가를 연계시켜 상황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복음을 선포하거나 변증하는데 있어서 문화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이상 문화가 복음을 변질시킨 혼합주의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교회 내에서 합법적인 목소리를 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때, 그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수단은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는 점을 체득하였다.³⁾ 셋째, 시대정신에 입각한 문화가 끊임없이 복음에 위협을 가하여 그 본질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선포된 복음에 침투하고 있는 세속화란 복음을 시대정신에 맞추는 일이다. 이미 1세기에 영혼과 물질을 구분하는 이원론에 복음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나타났다(Padilla, 1997:28). 그것은 기독교 사상사에서 가현설(Docetism)이라는 기독교론을 믿는 집단이다. 이들의 주장인즉,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인간의 가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일상생활을 하셨던 분으로 인식하지 않고 가현설적인 존재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신충훈, 2007:97). 이들은 세상을 이원론으로 해석한 시대정신 속에서, 속성상 선한 존재인 하나님이 속성상 악한 물질세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경고의 목소리를 내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人性)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적그리스도로 규정하였고(요일 4:1-3),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을 거짓말 하는 자라고 규정한다(요일 2:21-23).

3) 우리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변증으로 고린도인의 반란이 끝나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권위에 도전한 주도자들을 정죄했다는 소식을 성경에서 듣는다(고후 7:6).

가현설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는 1세기 교회에게 들려준 요한의 비판(요일 25)은 세속적 기독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넷째, 계시는 문화적 배경을 초월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서 사용하였던 범주를 특정 문화적 범주에 맞게 번역하거나 적용해서 사용해야 한다. 성경에 있는 옛 범주를 가지고, 특정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을 때, 신약 성경의 저지들은 복음의 분명한 의미가 드러나도록 다양한 문화적 상황에 맞게 적용하였다. 즉, 요한이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설명한 것은 헬라인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우리도 그 본을 따라야 한다. 그 한 예를 들면, '인자'(人子)라는 칭호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자신을 가리키는 소위 자칭호(self designation)로(김경진, 2003:102) 유대 문화적 상황에서 사용되는데, 그 칭호가 유대 문화적 상황을 벗어나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서구인들에게 '인자'라는 칭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히브리 사회에서 장남은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를 지니는데, 서구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상하의 위계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적 격차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월한 아버지와 종속적인 아들의 관계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인자'라는 말을 서구인들에게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단어로 대체되어야 한다(Kraft, 1979:494).

또 문화와 복음의 접촉은 언어와 문화의 변화를 초래하여 사회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단어들과 개념들을 변화시켜 그 의미를 재정의 하든지(redefined), 의미의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다. 예컨대 에클레시아(ekklesia)는 '완벽한 시민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합의한 헬라 도시의 합법적 모임을 뜻하였고, 관습적으로 '보냄받은 사자에 의해 함께 소환되고 불림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처음 지역적 의미에서(고전1:2),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명확한 지칭으로 변화되고 보편적 교회로 여겨지면서(고전10:32), 후에는 헬라와 로마의 세계 전반에 걸쳐서 일어났던 '가정 교회들 가운데 하나(고전 16:19)를 의미하게 되었다(Kraft, 1979:569).

이상에서 보듯, 복음이 특정한 문화에 선포될 때, 복음의 용어들을 특정문화에 맞게 적응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때 상황적 실체가 성경적 의미에 대한 우선권을 압도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다섯째, 문화는 복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모우리어(Maurier)는 이교신앙(Paganism)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출발점(Maurier, 1968)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교신앙은 기독교 복음의 그림자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소유한 지식에 기초하여 그들을 자극하시며 믿음을 갖게 하신다. 이러한 경우를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이교신앙의 문화적 배경 안에 있던 사람이 참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다.⁴⁾ 또 세례 요한의 제자단이 개종자들을 불러 모으려고 이곳저곳을 방랑하며 복음의 길을 예비하기도 하였다(행 18:24에서 19:7절까지). 이상을 통해, 우리는 이교의 문화적 상황이 복음의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⁵⁾

4) 몇 명을 들면 델기세텍(창 14:18), 이드로(출 2), 욥, 그리고 나아만(왕하 5) 등이다.

5)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상 문화가 선포된 복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문화가 복음에 그림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적대적일 수 있으며,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듯 문화가 선포된 복음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선포할 때 문화에 다층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암시받는다. 특히 우리는 앞서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서 좋은 선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바울은 세상의 문화에 대하여 열린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한편, 교회와 세상 사이의 분명한 경계선을 긋고 복음을 예민하게 관찰하는 가운데, 복음이 문화에 의하여 변질될 징후가 보이면 신속하게 변증을 시도하여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것은 현대의 복음 전파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하겠다.

2. 복음이 문화에 미친 영향

역으로 복음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첫째,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지만 문화적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표현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초문화적 이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인간 문화 속에서, 문화와 함께 일하신다. 그 단적인 예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하늘의 풍성한 복음이 흩어져 있는 민족들의 각 언어로 소통되고 교환된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행 2:8), 즉 각 민족들이 갖고 있는 언어문화로 전달된다. 또 신약성경에 복음을 묘사하는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도 복음 선포자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문화적 상황에 맞추어 복음을 제시하였음을 반영해 주는 좋은 예이다.⁶⁾ 이러한 예를 통해, 우리는 복음이 특별한 문화형식으로만 전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복음은 특정한 문화적 상황에 적합하게 선포되어야 한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는 히브리식(행 10:15)으로 반응하였으며, 몇 가지를 제외(갈2:11-14)하고는 히브리식으로 생활하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문화적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다.⁷⁾ 그 후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우리의 조상과 우리도 능히 깨닫지 못하는 멍에를”(행 15:10) 이방인들에게 메게 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하게 밝힌다. 이 말을 들은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한다. 이러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으로, 이방인들은 자신의 문화 양식을 바꿀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지만, 복음이 입는 옷과 들은 역사와 문화적인 상황에 맞게 표현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구원이 가능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 6) 복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제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행 10:36), “십자가의 도”(고전 1:18),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행 4:33), “그리스도의 복음”(롬 15:19), “하나님 나라의 복음”(마 24:14) 등이다(Padilla, 1997:85).
- 7)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어,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유대문화의 형식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형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깨우쳐주셨다(행 10:35).

둘째, 신약성경이 제시한 도덕적 가르침 가운데 대부분은 특정한 문화의 어떤 이상들과 두드러지게 다른 생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문화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양심에 기초한 도덕적 교훈을 인간에게 부여하셨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지 못했을 때, 인간은 양심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다시 말하면 양심에 기초한 도덕적 교훈은 그리스인, 로마인, 중국인, 인도인 등 모두 비슷할 뿐 아니라 우리시대의 도덕과도 비슷하다(Nicholi, 2003:85). 하지만 그 법칙에 대해 느끼는 정도나 한 문화 또는 개인이 그 법칙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이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이다(롬 2:15-16).

바울은 아디아포라(adiaphora, 영어로는 nodifference) 문제를 다루면서, 기독교인이 도덕적 원칙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법칙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신학적으로 제시한다. 아디아포라는 성경에 금하거나 명령하지 않는 어떤 의식적인 행사를 신자 개인의 양심에 맡긴다는 것으로, 즉 우상의 음식을 가려 먹든지 먹지 않든지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박윤선 1981:373). 이것은 우상이란 단지 목석에 불과하다는 사도 바울의 생각에 기인한 것인 바, 이 사실을 이해하는 자들만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디아포라 문제가 자율주의가 아니라는 바울의 견해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바울은 지식이 있는 강한 자들에게 문화적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옳은 것인지를 한번 숙고해 보라고 가르치고 있다. 즉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화적 표현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연약한 양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자유를 자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그런즉 그리스도인은 문화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이웃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 문화적 표현을 자제해야 할뿐만 아니라(김세윤, 2007:147-256)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문화를 표현하는데 조심해야 한다(고전 10:31).

이상을 통해,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복음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복음 선포자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상황에 맞추어 복음을 제시하였음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하겠다.

셋째, 복음은 특정한 문화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의미를 비판하여 교정시키는 힘, 문화변혁의 능력을 가졌다. 주님은 특정한 문화가 갖고 있는 문화적 이상과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이 상충할 때, 그 문화의 특정한 측면들의 문화적 기능을 비판하여 그 의미를 변화시키셨다. 주님은 주변 문화의 특성이나 특정한 측면들의 특성을 비판하셔서 인간 사회를 변혁시키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1세기의 히브리인의 문화관을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주변인물을 통해 추출할 수 있다.

- ① 유대인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을 냉대할 권리가 있다.
- ② 물질적인 번영과 사회적 지위는 하나님의 축복의 징표이다.
- ③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영예로운 자리에 앉을 권리가 있다.

- ④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로마를 무력으로 전복하는 일이 포함된다.
- 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보다 가정에 대한 성실성이 앞선다(Kraft, 1992:174).

예수님께서서는 위의 다섯 가지 당대의 문화적 환경을 비판하셨다. 다섯 가지 관점을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살펴보면, 현재 우리의 잘못된 문화체계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먼저 ①번의 관점을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를 살펴보자. 예수님은 사심 없는 이웃사랑의 예로서 한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셨으며,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셨다(눅 17:17). 그 결과 원시 공동체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으나 곧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생겨난 분열을 극복한다. ②번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를 축적하는 것은 비참한 오산으로 또는 영원한 고통의 근거라고 말씀하셨다(눅 6:19-31).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물질을 재분배하라고 가르치셨다.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앞 장에서 보듯 관대한 나눔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③번에 대해서, 예수님은 섬김의 문화가 기독교의 독특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다. ④번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정치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셨다. ⑤번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족보다 “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벧전 1:4), 즉 천국 보화를 얻기 위하여 일하라고 가르치시며, “하늘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의 상을 받을 것이며 앞으로 올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눅 18:29-30)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서는 당대의 문화적 관습을 말씀으로 변용시키셨다.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복음으로 문화를 변용시킬 때, 문화형식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의 동기에 나타난 기능, 의미, 해석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청자들의 문화적 기능을 신중히 고려해서 치밀하게 사용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문화에 활용 역량을 단연 돋보이게 한다. 예수님께서서 어떤 문화의 표현을 거부하거나 또는 긍정하실 때에는, 특정 문화 요소의 사용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대처하셨다. 이것은 복음을 전달해서 문화를 변용시킬 때, 특정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문화를 변용시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숙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침 역할을 한다.

넷째, 구약의 계시는 결코 변할 수 없지만, 위대한 문화의 규범자로서 예수님은(Vantil, 1984, 321) 문화의 형태를 한 단계 더 진보시켰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편을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셨고 그 권위를 인정하셨지만, 자신의 말씀을 장로들의 규례나 모세의 율법보다 높이 세우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히브리인들에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레 24:20)라는 문화적 원리를 허용하셨고 승인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복수를 단념하라고 요구하시어⁸⁾ 한 단계 높은 새 언약을 제시하셨다. 이와 같은 새 언약의 말씀은 더 큰 도덕적

8) 크래프트는 계시가 변한 것을 성경의 문화상대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필자는 그 개념보다는 문화변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명료함을 가져오며, 사랑의 의미를 명확하게 예증하고, 순종에 대한 더 큰 개인적 의무를 준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내적 의도를 해설하시면서 율법의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서 더 큰 의를 요구하신다(Hays, 2002:162-163) 그 결과 새 언약은 영광과 능력 면에서 현저히 옛 언약을 능가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구약의 언약이 바뀌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흔히 예수님에 의해 제정된 새 언약의 경우, 구약의 율법을 수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비이성적인 생각이다. 계시는 하나님의 불변적인 도덕적 특성을 반영하여 절대적이고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억지가 아닌가 하고 반문하고 싶을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 재료를 변형시켜 옷을 바꾸시는 것(시 102:25-26)처럼 문화를 새롭게 변용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Jordan, 2002:273). 바로 이러한 문화변용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를 정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기보다는 변화하고 있는 맥락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성경의 원리와 가르침을 해석할 때, 너무 정적이고 고정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Storkey, 1996:177). 이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더 이상 확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섯째, 신약성경은 문화에 대하여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복음이 세상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다.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은 신약 시대의 후기에 속하는 것으로써 배경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아주 유사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⁹⁾ 주변 세계를 정반대의 태도로 다루고 있다.¹⁰⁾ 두 성경에서 드러나듯, 신약성경은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하여 정반대의 상황을 묘사하지만(Legrand, 2000:162-165)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문화 전쟁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① 진리는 거짓보다 강하고, 빛은 어둠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②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지만, 사단은 자기의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싸울 뿐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사랑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 ③ 예수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이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 그 무기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기슴으로부터 흘러나오고, 그 기슴의 심장은 아가페로, 아가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신자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화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

9) 우상에게 제사드렸던 음식과 우상숭배의 문제(계 2:14, 20-21; 행 15:20, 29, 21:25), 유대인 동료와의 관계 문제(계 2:9, 3:9; 행 28:26-28), 내적 싸움(계 2:6, 14, 20; 행 20:30), 박해(계 2:3, 3:4, 8; 행 14:5, 16:20-24, 17:6-7, 20:29) 들이다.

10)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심판 받을 문명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철저히 거부한다. 요한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사탄의 회(2:9)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혹독한 비판을 받는다. 로마제국은 사탄의 앞잡이요, 지옥에서 올라온 짐승(13:1-10)이며, 이들은 종교집단의 위선과 거짓된 경건으로 더욱 극악해진다(13:1-17). 반면에 누가에게 있어서 박해는 복음을 전파할 기회(사도행전 6:7, 7:17, 8:2, 5-25)가 되고, 기쁨(5:41)과 찬양 및 감사(4:24-30)의 조건이 된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세계 역사의 전 과정이 전쟁(6:4), 기근(6:5-6), 재앙(6:8)의 기록으로 되어 있고, “하늘에는 기쁨이, 땅과 바다는 화(12:12)”가 있다. 반면에 누가는 “땅에는 평화”(2:14)라고 노래하고 있다.

는 속성을 갖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

이상 네 가지를 검토하였다. 정리하면, 복음은 문화적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표현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복음은 유대교의 라이프스타일에 강력한 도전을 주었고, 다원주의 사회인 이교도의 사회정치적 질서를 변화시키는 새 촉매제로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다수의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와서 대안공동체를 형성하여 세계를 변혁시켰던 초대교회의 극적 상황을 보면, 복음이 가진 문화변혁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실감할 수 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복음이 궁극적으로 세상의 문화에 승리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신약성경은 복음이 문화적 저항에 직면하여 순교하기도 하는 심각한 상황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III. 문화적 가치에 대한 신약성경의 태도

20세기 후반을 지나 21세기에 이르면서 신학자들 사이에 문화가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Lynch, 2005:21). 특히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그것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신약성경은 문화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신약성경에서 문화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세상(Cosmos)인데, 빠달리는 세상이란 용어를 구원론과 관계지을 때(Padilla, 1997:16), 우주적 차원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요(요1 2:15-17),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이다(요 3:16-18). 신약성경에서 세상은 어둠의 노예가 된 부정적인 세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세상'이 복음의 대상으로서의 세상 사람들을 지칭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송인규, 2001:16-19). 분명히 말하여 세상의 의미가 두 가지로 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문화도 두 가지 대립적인 의미로 되어 있음을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즉 문화는 하나님께서 수용하기도 하시지만, 문화를 심판하기도 하신다는 것이다(Newbigin, 2007:360).

신약성경에서 교회가 헬레니즘 문화에 맞서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교회가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 있다"(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in과 of가 의미하는 것이다. "in the world"는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여전히 많이 있는 비기독교인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과의 상호작용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면서(고전 5:10) 세상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당분간 우리를 이 땅에 두기로 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of the world"가 되지 않도록 경고를 받고 있다. "not of the world"는 죄에 의해 지배되고, 그리스도의 속죄 밖에 있는 행동과 믿음의 총체인 "world system"의 영향권 아래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은 창조물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물에 현재 존재하는 죄이다. 여기

서 그리스도인들은 도전을 받는다. 그리스도인들은 비기독교인들이 만든 문화적 생산물의 영향권 아래 놓이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잘 선용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인 원자재를 어느 것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비기독교인들이 만든 것을 전리품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질책해서는 안 된다. 우상에게 제공되었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바울이 가르친 요지가 이것을 확인시켜 준다(고전 8:4, 10:25). 비록 음식이 이교도에 의해 준비가 되었다고 해도, 자유로운 양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다. 또 하나의 원리를 들라고 하면, 우리는 성전 건축에서 비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할 목재와 돌을 준비하였고(대하 2:8-10, 18), 이스라엘 기능공들이 마무리하였다는 점을 밝힐 수 있다.

둘째, 기독교인들은 성경적 기준에 따라(고전 2:15, 데전 5:21) 비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만든 문화상품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메시지 내용과 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조심스럽게 평가해야 한다. 세상의 물건들은 그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에게 유혹이 되었듯이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신 7:16, 12:30).

셋째, 일반적으로 개혁파의 신학자들이 인간의 문화적 책임을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이라고 부르는데(Webber, 1989:34), 전적타락이 문화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문화 명령을 성스럽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창 1:28).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며,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때문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벧후 3:13)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여정에서 문화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문화적 책임에 관하여 신약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바울은 우리가 기업을 받기 위해서 구속받았고(엡 1:5) 구속하신 목적을 두 계열로 파악하였다. 하나는 기업(약속된 유산)이 땅과 관계되고(엡 6:2-3) 다른 하나는 '선한 일'(good works)과 관련된다(엡 2:10). 그렇다면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문화적인 일도 포함된다. 신자들은 문화적인 일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자연에서 배울 수 있으며(Vantil, 1984:237), 초문화적 진리로 특정 문화의 세계관에 영향을 끼쳐 문화변혁을 시도해야 한다(롬 12:2). 이와 같이 인간은 문화 변혁의 참여 과정에서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변혁적으로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마 5:12).

궁극적으로 신약성경은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성경은 하나님 없는 문화, 즉 죄로 오염된 문화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신약성경에 세상을 악한 것으로 보고(요일 5:19) 그 흐름에 합류하지 않기를 강하게 권한다.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강하게 악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세상을 정죄한 것은 그 문화가 죄에 의해 오염되어서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을 더 이상 달성할 수 없는 자못 특별한 때였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간은 창조주가 자신의 창조 세계를 기뻐하고 인정한 것에 근거하여 전피조물의 회복을 위

해 살롬의 문화를 선포해야 하며(신국원, 2005:342),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요일 5:4).

신약성경이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부여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24절과 26절의 말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말씀을 인용하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24)…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26).

위의 인용 구절에서 요한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라고 하여 새로운 예루살렘에 들어 갈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갈 ‘영광과 존귀란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헤제만은 “영광과 존귀”(glory and honor)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그리스 단어 doxe(NKJV에서는 “glory”, NIV에서는 “splendor”)와 time(honor)은 신약에서 널리 사용되는데, 고결한 가치나 아름다움을 가진 실제 물질적인 물체를 지칭할 때 doxe를 자주 사용하고, time은 귀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지칭하는데 사용된다(Hegeman, 1999:86).

헤제만이 언급한 것처럼 ‘영광과 존귀가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을 지칭한다고 할 때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인간이 만든 문화적 창조물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가져갈 것이 성스러운 것임에 틀림없다(계 21:27).

헤제만의 주장처럼 시온(Zion) 성 안에 인간이 만든 실질적이며 물리적인 인공물이 들어간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21장을 이사야 60장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이사야 60장에서 미리 예견한 “City of the Lord”/“Zion”의 비전을 보면, 두 도시는 문이 절대로 닫혀 있지 않고(사 60:11;계 21:25), 여호와가 빛의 근원이시며(사 60:19-20;계 21:23). 인간의 고통이 완전히 없음을 경축하고(사 60:18;계 21:4), 하나님의 신성한 불 빛 아래 서 있으며(사 60:1-3;계 21:24), 지상의 나라로부터 물건들을 수확한다. 시온으로 인도될 보물은 금, 은, 다른 귀한 물건들(6, 9, 17), 기축과 낙타(6-7), 호화로운 건축 재료(13) 등이 포함된다. 이 모든 것이 “영광과 존귀”(glory and honor)가 될 것이다(Hegeman, 1999:88,89).

헤제만이 검토한 바를 인정한다면, 구속받은 성도들의 문화생산물 가운데 뛰어난 것들이 새 예루살렘을 꾸미게 될 것인 바¹¹⁾ 그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 일인가(계 14:13)?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라

11) 박윤선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우주의 구재료들을 버리고 아무 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지으셨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세계는 옛 세계 실체의 연속성이면서도 딴 종류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박윤선, 1981:348). 또 같은 책 378면에서 헤르만 바빙크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즉 새 예루살렘에는 “천상과 지상의 모든 피조물 중, 무엇이든지 참된 것, 귀중한 것, 옳은 것, 깨끗한 것, 사랑스러운 것, 조화로운 것이 혁신되고 개조되고 또 최고의 영광을 입어 가지고 내세에 나타난다.” 박윤선, 성경주석 요한계시록, 영음사, 1981, 348

면 하나님 앞에서 문화적인 소명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이 파괴될 것이라는 비극적 결론을 내려 인간의 문화적 노력을 무가치하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하는 일과 우리가 보게 될 미래의 영광 사이에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한다면¹²⁾, 이것은 문화창작 작업에 대한 심오한 희망과 동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문화명령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문화적인 일들이 '영원히' 중요한 것이라는 성경적 가르침을 더한다면 우리의 문화적인 일은 영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구속받은 성도들의 예술작품, 시, 학문적 이론 중 최고의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기여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만약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인간의 문화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인간 문화 전체가 파괴의 운명에 처하게 된다면 문화적인 일들이 궁극적이고 지속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게 되어 그것을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하게 될 것이다. 미적인 가치에 대한 신약성경의 태도가 긍정적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작품 가운데 최상의 것을 기쁨으로 열납하실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Marshall, 1991:40).

V. 결론

이상 신약성경에 나타난 복음과 문화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가를 검토하여 문화가 선포된 복음의 형태에 끼친 영향을 밝혔고, 복음이 문화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였다. 이어 문화적 가치에 대한 신약성경의 태도에 대하여 천착하였다.

복음과 문화와의 관계를 논할 때, 먼저 인류에 두 가지 중요한 역사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구속의 역사와 문화의 역사이다. 신약성경의 문맥에서 보면, 인류 역사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인 구속의 역사와 문화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의해 분명해진다. 구속 역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으며, 문화의 역사도 그분의 말씀으로 뚜렷한 방향과 목적을 갖게 되었다. 두 역사는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구속의 역사가 받아들여지는 곳에 문화변혁의 역사도 병렬적으로 진행되어 하나님 나라의 실재인 살림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지닌다.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구속의 역사와 더불어 문화의 역사가 함께 간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데 멈추지 않고 문화를 창조

12) 연속성의 문제에 대해서 헤게만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불이 획지나감이란 가치 없는 것을 파괴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그 단서를 출애굽기 40장 34-38절에 나오는 '소멸하는 불'이 장막과 그 장비를 파괴하지 않고 정화시키고(고전 3:13-15) 것에 찾고 있다(Hegeman, 1999:91).

하고 문화변혁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앞으로의 계속되어야 할 과제는 한국 사회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과 문화가 어떤 교섭양상을 보였는지까지 살펴,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또 복음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잘못 이해된 것에 대한 신학적 검토,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을 복음으로 변혁시키지 못하고 있는 한계와 그것의 극복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진(2003), 『하나님 나라와 윤리』, 그리심.
- 김성태(2000), 『선교와 문화』, 이레서원.
- _____(1997 봄), “교회지도력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선교신학적 고찰”, 신학지남사.
- 김세운(2007), 『고린도전서 강해』, 두란노 아카데미.
- 김의환(1997 봄), “교회내 여성사역의 제한성과 중요성”, 『신학지남』, 신학지남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편(1991), 『예수 그리스도와 문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부.
- 박윤선(1981), 『성경주석 로마서』, 영음사.
- 박희석(2002), 『안식일과 주일』,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송인규(2001),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 IVP.
- 신국원(2002), 『문화전쟁 시대의 기독교 문화전략』, IVP.
- _____(2005), 『변혁과 살롬의 대중문화론』, IVP.
- 신충훈(2007), “유다복음과 영지주의에 관한 언어 문체적 특성 비판”, 『기독교와 어문학』 제4권 1호.
- 문용식(2005), 『그리스도인을 위한 문화 이해』, 예영커뮤니케이션.
- _____(2003), “문화연구란 무엇인가”, 『총신대논총』 제23집.
- _____(2004 겨울호), “구약에 나타난 문화적 특질”, 『신학지남』, 신학지남사.
- _____(2007), “문화전쟁의 측면에서 본 성화와 변화”, 『기독교와 어문학』 제4권 1호, 한국기독교 어문학회.
- Alan Storkey, *A Christian Social Perspective*, 김현수 역(1996), 『기독교인의 사회관』, 생명의 말씀사.
- Albert A. Bell(1998), *Exploring the New Testament World*,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오광만 역.
- _____(2005), 『신약시대의 사회와 문화』, 생명의 말씀사.
- Armand M. Nicholi(2002), *The Question of God*, 홍승기 역(2004), 『루이스&프로이트』, 홍성사.
- Charles H. Kraft(1979), *Christianity in Culture*, New York, Orbis Books, 임윤택·김석환 역(2006), 『기독교와 문화』, CLC.
- _____(1989), *Christianity with Power*, Ann Arbor, Michigan, Servant Publications, Vine Books, 이재범 역(1992), 『능력 그리스도교』, 나단.

- Henry R. Vantil(1974),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Presbyterian and Reformed*, 이근삼 역(1984), 『칼빈주의 문화관』, 성암사.
- James Boice(1978), *The Gospel of John, Grand Rapids, MI : Zondervan Publishing Co*, 서문강 역(1995), 『주석적 요한복음 강해 II』,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James B. Jordan(1988), *Through New Eyes: Developing a Biblical View of the World*, Niceville, Florida, Biblical Horizons, 이동수·정연해 역(2002), 『새로운 시각으로 본 성경적 세계관』, 로고스.
- J. christian Beker(1980), *Paul the Apostle-The Triumph of God in Life and Though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장상 역(2004), 『사도 바울 : 바울의 생애와 사상에서의 하나님의 승리』, 한국신학연구소.
- Johannes G. Vos(1948), *Biblical Theology Old and New Testament*, Grand Rapids:Eerdmans, 이승구 (1985), 『성경신학』, 기독교문서선교회.
- Lesslie Newbigin(1989),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Eerdmans Publishinf Co, 홍병룡 역(2007),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IVP.
- Paul G. Hiebert,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채은수 역(1993), 『문화 속의 선교』, 총신대출판부.
- Richard B. Hays(1996),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harperCollins Pulishers Inc, 유승원 역(2002), 『신약의 윤리적 비전』, IVP.
- D. B. Hegeman(1999), *Plowing in Hope*, Moscow, Idaho, Canon Press.
- Donald McGavran(1974), *The Clash Between Christianity & Cultures*, Washington, D.C, Canon Press.
- Gordon Lynch(2005), *Understanding Theology and Popular Culture*, Malden MA, Blackweel Publishing.
- Howard Marshall(1991), *Gospel & Culture-Culture and the New Testament*-William Larey Library.
- John Drane(2000), *Cultural Change and Biblical Faith*, Waynesboro, Paternoster Press.
- Lucien Legrand(2001), *The Bible on Culture*, New York, Orbis Books.
- Maurier, Henri(1968), *The Other Covenant: A Theology of Paganism*, New York, Newman Press.